

LG화학, GM 2차전지 계약 “순항”

2011년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채용 ... 2009년 현대자동차에도 공급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상관없이 미국 GM과 LG화학의 하이브리드자동차용 2차전지 공급 협력은 순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반석 LG화학 부회장은 “GM과 협상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용 2차전지 납품계약은 자동차 경기 악화와 상관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GM을 비롯한 미국의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지만, 신 성장동력에 대한 R&D 투자는 지속될 것”이라며 “협상결과가 긍정적”이기를 기대했다.

이어 “2009년 7월에는 약 3000대 정도의 현대자동차 아반떼 하이브리드자동차에 2차전지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한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M은 상용화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시보레 볼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리튬전지 공급기업으로 LG화학을 선정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이 타결되면 LG화학은 2011년 하이브리드자동차 모델에 첨단 리튬전지를 공급하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08>